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증상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이 아 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 민 규†

경상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용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건강 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참여자는 경남, 부산 지역의 대학생 및 일반인 440명이었다(평균 연령 22.38세, 남성 249명, 여성 191명). 연구에서는 타인용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신체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SEM)을 통해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과국화'의 4가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용서가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가지 전략 중 '타인 비난'과 '과국화'만이 용서와 신체증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용서 또한 신체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타인 비난'과 '과국화'가 용서를 거쳐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용서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 모형이 더 타당한 모형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중 '타인비난'과 '과국화' 전략을 쓰는 것이 신체증상을 증가 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용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미래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용서,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신체증상, 매개효과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12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이민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Tel: 055-751-5781, E-mail: rmk92@chol.com

인간은 혼자서 살아 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므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구나 한번쯤은 가족, 배우자, 친구 또는 낯선 사람들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부당함을 경험하거나 큰 상처를 받고, 개인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노나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서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McCullough, 2000). 용서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Enright(2004)는 “용서란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을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동정과 자비,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복합적인 심리과정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행동, 인지를 보다 긍정적인 정서, 행동, 인지로 대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용서의 정의는 어떤 측면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첫째, 용서를 하는 사람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측면, 둘째, 누구(타인, 자신, 상황)를 용서하느냐에 대한 측면, 셋째 용서를 특성으로 보느냐 특수한 상황으로 보느냐에 대한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오영희, 2008; Thompson et al., 2005).

용서를 한가지로 어떻게 정의할 것 인지와는 상관없이, 용서의 이점을 평가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몇몇의 경험적 연구에서 용서는 더 낮은 수준의 우울, 더 높은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McCullough et al., 2001; Toussaint & Webb, 2005), 더 많은 긍정적 정서 및 더 적은 부정적 정서, 그리고 더 적은 신체증상과 관련된

다는 보고가 있었다(Bono et al, 2008; Tse & Yip, 2009; Finkel, Rusbult, Kumashiro, & Hannon, 2002).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용서와 신체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용서가 심혈관계 증상 및 당뇨 증상과 부적상관이 있음이 밝혀졌고(Lawler-Row, Karremans, Scott, Edlismatityahou, & Edwards, 2008; DeWall, Pond & Bushman, 2010), 국내에서도 용서가 신체 및 정신건강과 정적상관을 보이며 용서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화병 증상을 키울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는 등 용서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대두되고 있다(박종효, 2003; 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2011). 더불어 최근에는 이러한 용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대인관계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용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다(김광수, 2008; 김철환, 2008;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이선복, 2008; 장선숙, 김향숙, 홍상환, 2005).

이렇듯 용서가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용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변인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성격적인 요인, 성차나 연령 등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 가해자의 사과 여부나 가해 의도 등의 상황적 요인, 공감이나 반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등의 심리적 요인들이 용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김상현, 금명자, 2011; 전은숙, 홍혜영 2012; McCullough, Root, Tabak, & Witvliet, 2009; Briana & Joulie, 2011; Miller, Worthington, & Mcdaniel, 2008; Crossley, 2009; Ohtsubo & Watanabe, 2009). 이 들 중 용서에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요인의 경우 개인의 노력이나 치료적 개입을 통해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적 장면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한편, 용서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는 상처나 부당한 피해로 인한 분노나 미움,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선행하게 되는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이를 분명하게 직면하면서 건강하게 노출할 수 있는 정서 표현 및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대방과 가해 상황을 객관적이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껴보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고통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며 점차 마음의 전환을 가져오는 인지적 재구성을 해야 하는데(김광수, 2008; 정성진, 장성숙, 서경현, 2012), 용서가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행동, 인지를 보다 긍정적인 형태로 대치하는 과정임을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정서조절 방식이나 인지적인 특성이 용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서조절 방식이나 인지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용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용서를 활용한 치료적 개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불쾌한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정서조절이라고 하는데(이지영, 권석만, 2006), 모든 전략들이 적응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긍정적재조명’, ‘해결중심적사고’, ‘긍정적재평가’, ‘균형있게 바라보기’의 적응적인 전략 5가지와 ‘자기비난’, ‘반추’, ‘파국화’, ‘타인비난’의 부적응적인 전략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이라고 알려진 반추와 용서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몇몇의 연구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더 많이 반추하는 것이 용서와 부적상관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했다(Barber, 2005; McCullough, 2000; McCullough et al., 2001; Worthington, 2001; Worthington, & Wade, 1999). 또한 최근 연구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용서와 정적 상관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타인비난과 파국화는 용서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수준에 따라 용서 경향성이 달라진다는 점이 밝혀졌다(전은숙, 홍혜영 2012). 그리고 적응적 정서조절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에서, 정서조절과 정서회복 능력이 더 높은 용서 경향성을 예측한다는 것을 보고했다(Hodgson & Wertheim, 2007; Rizkalla, Wertheim, & Hodgson, 2008). 한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자기비난, 반추, 파국화는 다른 조절 전략들에 비해 높은 우울 점수와 강한 상관을 보였다(Garnefski, Teerds, Kraaij, Legerstee & Kommer, 2004). 더불어 여러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누적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표출하게 되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 병리, 신체증상을 일으키며(이서정, 현명호, 2008; 이지영 등, 2006; 조현주 등, 2007),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개인이 피로를 덜 느낀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Brown & Schutte, 2006). 이처럼 정서조절 또한 용서 및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으로, 특히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면 용서 경향을 저하시키고 신체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서조절과 용서가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용서 및 신체 증상의 관계를 함께 검토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용서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정임을 고려해 볼 때, 용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용서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조절전략들 중에서도 용서 및 신체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쳐서 실제 임상 장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였다. 더불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용서나 신체증상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면 용서를 활용한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 대인관계로 인한 상처나 피해를 입었을 때, 4가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신체증상의 관계에서 용서의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 4가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개인이 상처를 받았거나 부당한 피해를 경험했을 때 각각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용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신체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용서를 거쳐 신체증상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4가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각각이 용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증상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그동안의 용서 연구를 한층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4가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신체증상간의 관계를 용서가 매개할 것이다.

1) 자기비난 전략과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용서가 매개할 것이다.

2) 반추 전략과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용서가 매개할 것이다.

3) 파국화 전략과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용서가 매개할 것이다.

4) 타인비난 전략과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용서가 매개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부산·경남 지역의 대학생 및 일반인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 했거나 결측치가 많은 자료 24부를 제외한 44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22.38세( $SD=3.88$ )였으며, 남성은 249명(56.6%)이었고, 여성은 191명(43.4%)이었다. 성별과 종교에 따라 용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관이 발견되지 않아 성별 및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이 받은 상처나 피해의 종류는 ‘언어폭력’이 108명(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애인의 ‘배신’이 61명

(13.9%), ‘무시받음/외면당함’이 49명(10.8%), ‘정신적 피해’가 42명(9.5%)으로 많은 편이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친구’가 154명(35.0%)로 가장 많았고, ‘애인(배우자)’가 89명(20.2%), ‘선배/후배’ 54명(12.3%), ‘부모님’ 34명(7.7%) 순이었다.

#### 측정도구

측정 도구로는 타인용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신체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 실시예 앞서 참여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가장 상처 받았던 일이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던 상황을 간략하게 적게 한 후(1문항),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체크하도록 했다(1문항). 이후 그 사건과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도들은 분석에 앞서 SPSS 15.0 Windows를 사용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측정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인 용서 척도

오영희(2008)가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용서 점수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상황적 용서를 측정하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용서 점수는 부정적 문항을 역산한 후, 24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오영희(2008)의 연구에서 처

럼 고유가(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 4개가 추출되었으나, 1요인이 대부분의 변량을 설명(47.82%)하고 있었으므로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44였다.

####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2001)가 개발하고 김소희(200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를 사용하여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했다. 이 척도는 총 36개 문항으로, 하위 척도로는 적응적인 전략 5가지와 부적응적인 전략 4가지가 있다.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거의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과 용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4가지에 속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4요인(자기비난, 반추, 파국화, 타인비난)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부하량이 너무 낮고 두 요인에 동시에 높이 적재되어 있는 2문항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자기비난 4문항, 반추 2문항, 파국화 4문항, 타인비난 4문항이었으며, 개별 요인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14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767이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차례대로 .792, .688, .777, .781이었다.

#### 신체증상 척도

신체증상척도는 한덕용,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와 이건호(1993)가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신체증상들을 측정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혈관계증상, 두통증상, 소화기증상, 수면증상, 가슴통증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문항에 해당하는 증상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았다)에서 5(매우 그랬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신체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4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은 '심혈관계증상'을 측정하는 8문항, 요인 2는 '소화기증상'을 측정하는 9문항, 요인 3은 '두통'을 측정하는 4문항, 요인 4는 '수면장애'와 관련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차례대로 .924, .881, .877, .850이었다. 분석에서는 총 24문항에 대한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51이었다.

절차

부산·경남 지역의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로 수업시간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10-20분가량 소요되었다.

통계적 분석은 정서조절 전략과 용서 및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값 산출), 정상성 검증,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5.0과 AMOS 7.0 프로그램으로 수행하였다.

결 과

각 변인별 상관 분석 및 기술통계

각 주요 변인 간의 상관 값 및 평균, 표준편차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자기비난 전략은 타인비난과 부적 상관, 반추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타인비난은 반추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과묵화는 자기비난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반추는 타인비난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상관이 있었다. 또한 용서는 자기 비난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부적 상관, 신체증상은 자기 비난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용서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1. 각 변인 간 상관 및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M	SD
1. 자기비난	-							12.09	3.243
2. 타인비난	-.266**	-						9.04	2.920
3. 과묵화	.083	.390**	-					8.83	3.516
4. 반추	.276**	.057	.366**	-				6.45	1.937
5. 용서	-.016	-.207**	-.205**	-.137**	-			72.68	19.643
6. 신체증상	.077	.269**	.420**	.222**	-.267**	.314**	-	53.13	20.524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료의 정상성 검증

구조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자료의 정상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본 결과,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 모형 검증 및 매개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잠재 변수 중 용서(24문항)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각각 문항 묶음(item parcels)을 실시하여 3개와 2개의 측정 변수로 만들어 투입했다. 문항 묶음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잠재변수에 대한 문항 묶음들의 평균 요인 부하량을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1요인으로 나타난 각 척도의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매긴 후, 각 문항묶음에 요인 부하량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공평하게 들어가도록 할당하였다. 한편, 각각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측정 변인은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신체증상에 대한 측정 변인으로는 해당 척도의 4가지 하위요인 각각의 합계 점수를 사용했다.

4가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용서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① 모형의 적합도 검증 → ② 매개효과 검증 → ③ 매개의 종류(완전매개/부분매개) 검토’의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가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hi^2$  통계량(df, 유의도), 절대적합지수로 GFI(Goodness-of-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증분 적합도지수로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을 중심으로 해석했다. 또한 RMSEA 값을 제시할 때는 90% 신뢰구간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함께 제시하여 RMSEA 값의 오차를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각 정서조절 전략에서 용서로 가는 경로와, 용서에서 신체증상으로 가는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간접 효과(4가지 전략 각각이 용서를 매개하여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Sobel-Z값이 유의한지를 분석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했다(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가 유의할 경우, 마지막으로 연구 모형(부분매개모형)과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매개가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를 알아보았다. 모형 비교에는  $\chi^2$  검증을 사용하였다.

###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증상 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 효과 검증

그림 1에 나타난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493.568(p=.000)$ , GFI=.909, TLI(NNFI)=.915, CFI=.928, RMSEA=.064 (90% 신뢰구간: .057-.070), SRMR=.099로 매우 높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변수 간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를 표 3에 제시하였고, 그림 2의 연구모형에 유의한 경로를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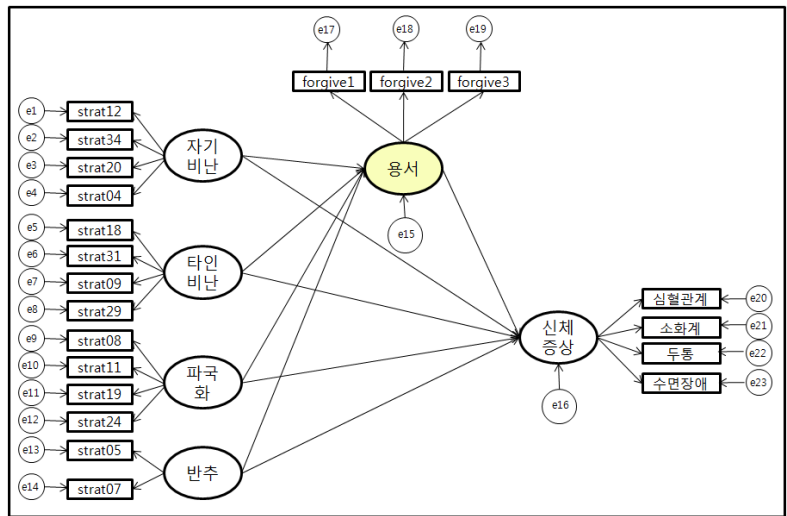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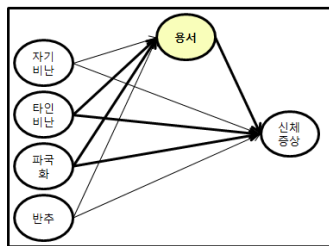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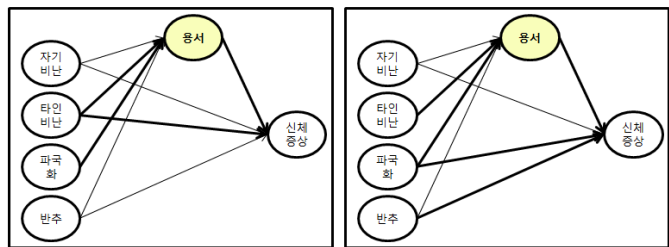
그림 1. 용서의 매개효과

표 2. 연구모형 1의 적합도 지수 (용서 매개모형)

Model	$\chi^2$	df	p	GFI	TLI	CFI	SRMR	RMSEA (90% C.I.)
연구모형 1	493.568	178	.000	.909	.915	.928	.099	.064 (.057-.070)



연구모형 1 (용서의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 모형1 (파국화-용서-신체증상)

완전매개 모형1 (타인비난-용서-신체증상)

그림 2. 용서의 부분매개 및 완전매개 모형 비교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서 용서로 가는 경로의 비표준화 계수(B)를 a, 표준 오차를 SEa로, 용서에서 신체증상으로 가는 경로의 비표준화 계수(B)를 b, 표준 오차를 SEb라 할 때, 용서를 통한 매개효과(또는 간접효과)는 a 효과와 b 효과를 곱한 값인 ab로 정의된다. 용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b에 대한 Sobel-Z 값을 산출하여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Sobel-Z 값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MacKinnon & Dwyer, 1993).

$$Z_{ab} = \frac{ab}{\sqrt{b^2SE_a^2 + a^2SE_b^2}}$$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a, b 경로가 유의한 변인은 ‘파국화’와 ‘타인비난’이었으므로 이 두 가지 변인에 대한 간접효과를 검증했다. 각각의 간접 효과에 대한 Sobel-Z 값은 ‘파국화→용서→신체증상’ 경로의 경우 2.087 ( $p=.034$ ), ‘타인비난→용서→신체증상’ 경로의 경우 2.280( $p=.022$ )으로 두 경로 모두  $\alpha=.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

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용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타인비난과 파국화에 대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 모형 1, 2 각각은 내재화된(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chi^2$  차이 검증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하다.  $\chi^2$  값은 적을수록, df 값은 클수록 좋은 모형이기 때문에  $\chi^2$  값의 감소 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할 때 더 좋은 모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는 3.84이므로 두 모형 간  $\chi^2$  값의 차이가 3.84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우선 파국화와 신체증상 간의 직접효과 경로를 제외 한 완전매개모형의  $\chi^2$  값은 부분매개모형에 비해 37.133 증가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통계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비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hi^2$  값이 8.373 증가하여 부분매개 모형을 지지했다. 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3. 용서 매개모형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R.	P
용서	← 파국화	-1.751	-.143	.657	-2.665	.008
용서	← 타인비난	-2.618	-.190	.842	-3.108	.002
용서	← 반추	-.713	-.079	.589	-1.209	.227
용서	← 자기비난	-.360	-.039	.623	-.578	.563
신체증상	← 자기비난	1.026	.113	.589	1.743	.081
신체증상	← 반추	.327	.037	.553	.591	.554
신체증상	← 용서	-.161	-.165	.048	-3.326	***
신체증상	← 타인비난	2.441	.181	.808	3.021	.003
신체증상	← 파국화	4.581	.383	.730	6.277	***

표 4.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비교

	경로	$\chi^2$	df	$\Delta\chi^2$
파국화	완전매개모형 1	530.701	179	37.133
	연구모형 1(부분매개모형)	493.568	178	
타인비난	완전매개모형 2	501.941	179	8.373
	연구모형 1(부분매개모형)	493.568	178	

## 논 의

본 연구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증상의 관계에서 용서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개인이 상처나 부당한 피해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 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신체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밝혀진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경우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Garnefski et al., 2004; 이서정, 현명호, 2008; 이지영 등, 2006; 조현주 등, 2007). 한편,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반드시 부정적 정서가 선행하게 되는데, 어떤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용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즉,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용서는 적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전은숙, 홍혜영 2012; Barber, 2005; McCullough, 2000; McCullough et al., 2001; Worthington, 2001; Worthington, & Wade, 1999). 또한 최근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용서는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했다(Bono et al, 2008; Tse & Yip, 2009; Finkel, Rusbult, Kumashiro, &

Hannon, 2002; Lawler-Row, Karremans, Scott, Edlis-Matityahou, & Edwards, 2008; DeWall, Pond & Bushma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용서,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용서에 부적응적 영향을 미치며 신체증상을 증가시키지만, 용서는 신체증상을 감소시킬 것이라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가지와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용서’가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여 변수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4가지가 용서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각각 살펴본 결과, ‘타인비난’과 ‘파국화’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비난’과 ‘반추’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만(전은숙, 홍혜영, 2012), 반추가 용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Barber, 2005; McCullough, 2000; McCullough et al., 2001; Worthington, 2001; Worthington, & Wade, 1999). 즉 불쾌한 일이나 상처를 경험할 때 그 일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그 사건을 몹시 끔찍하고 최악이었던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서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타인비난 경향성이 용서를 더 잘 예측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용서를 대인관계적 과정으로 정의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비난이 용서 및 신체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순(2008)은 한국 성인의 용서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가해로 인한 증오를 핵심 현상으로 보고 용서란 증오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즉 타인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미움의 감정인데,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자기비난은 우울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나 분노와는 상관성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조현주 등, 2007), 본 연구는 타인용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비난의 경우 용서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감, 열등감, 죄책감, 실패감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은 수치심을 쉽게 느낀다는 보고가 있었다(권희영, 홍혜영, 2010; 김정미, 2009). 최근 성피해자의 수치심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자기용서와 상황용서의 경우에는 매개효과를 가졌으나 타인용서의 경우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하늘, 배성만, 현명호,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기비난의 경우 용서의 정의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상을 겪었을 때 용서 경향을 더 낮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추는 용서를 저해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Barber, 2005; McCullough, 2000; McCullough et al., 2001) 이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외상이나 상처의 경우 가해자나 그와 관련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하늘, 배성만, 현명호, 2011),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겪은 외상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당시 자신의 감정을 되짚어 생각하는 정도로는 용서나 신체증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더 붙여 최근에 반추의 또 다른 기능인 성찰적인 면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과 용서를 매개한다는 연구가 있었고(Ysseldyke, Matheson, & Anisman, 2007), 반추의 하위 개념인 ‘숙고(reflective pondering)’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상태를 자각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긍정적인 사고내용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등(김소정, 김지혜, 윤세창, 2010) 반추의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상처의 심각성 및 반추의 하위 유형에 따라 용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서와 신체증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용서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검증한 결과, 용서는 신체증상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 개관에서 논의한 여러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Bono et al, 2008; Tse & Yip, 2009; Finkel, Rusbult, Kumashiro, & Hannon, 2002; Lawler-Row, Karremans, Scott, Edlis-Matityahou, & Edwards,

2008; DeWall, Pond & Bushman, 2010). 본 연구에서 신체증상은 심혈관계증상, 소화기증상, 두통, 수면장애와 관련된 증상들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자신에게 상처나 피해를 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이러한 신체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증상 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서는 타인비난 및 파국화와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타인비난 및 파국화 정서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도 신체증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러한 정서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용서를 덜하게 함으로써 신체증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정서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증가시키는 개입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용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용서 연구의 확장에 기여했다. 용서와 정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이들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둘째, 최근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용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이다. 용서 전략은 깊은 상처나 피해를 경험했을 때 손상된 대인관계를 회복시키고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주제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김광수, 2008; 김철환, 2008;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이선복, 2008; 장선숙, 김향숙, 홍상환, 2005). 본 연구는 용서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부적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회기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에서, ‘타인비난’, ‘파국화’를 사용하는 개인의 경우 타인용서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자기비난’에 대한 개입의 경우 타인용서보다는 자기용서나 상황용서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반추’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자신이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안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남, 부산지역의 대학생 및 일반인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특히, 용서 수준이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왔기 때문에(Allemand, 2008; Ghaemmaghami, Allemand & Martin, 2011)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참여자들이 경험한 상처의 심각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참여자들이 받은 상처나 피해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친구나 선후배에게서 받은 언어적 폭력이나 애인의 배신, 마음의 상처 등이었다. 용서는 심각한 상처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전략인데, 만약 상처가 그리 깊지 않거나 개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굳이 용서하지 않더라도 신체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성폭력 피해자, 살인 피해자 가족, 심한 왕따를 당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처를 받은 사건이 무엇인지와 가해 대상만을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경험한 부적 정서의 강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정서의 강도는 정서조절 전략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며(이지영, 2009; 조성은, 오경자, 2007), 앞서 제시한 제한점인 상처의 심각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측정했다면 좀 더 설명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용서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 편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 용서 척도의 개발자가 사회적 바람직성과 상관성이 높았던 문항을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 또한 용서는 서론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개인의 성격적 변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 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므로 이를 통제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2011). 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용서가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691-707.

권희영, 홍혜영 (2010).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23-1048.

김광수 (2008). 용서상담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 대인관계 문제 개선과 정서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학지사.

김상현, 금명자 (2011). 공감에 지각된 가해의도에 따라 용서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325-339.

김소정, 김지혜, 윤세창 (2010).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RR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1-19.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미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정서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05-225

김철환 (2008). 용서훈련이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용서와 피해의식 및 보복심리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용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용서 정도와 분노,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집단상담과 집중형 집단상담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47-366.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오영희 (2008).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3.

이경순 (2008). 용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237-252.

이서정, 현명호 (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887-905.

이선복 (2008). 용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

- 의 용서수준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영 (2009). 정서강도와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28(4), 1217-1226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장선숙, 김향숙, 홍상환 (2005). 초등학생용 교우관계 용서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99-220.
- 전은숙, 홍혜영 (2012). 성인애착과 용서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159-1179.
- 정성진, 장성숙, 서경현 (2012). 용서과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123-142.
- 조성은, 오경자 (2007).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강도, 정서주의력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97-812.
- 조현주, 전태연, 채정호, 우영섭, 최정은, 기백석, 임현우 (2007). 우울장애의 불안, 신체화, 분노 증상과 정서조절방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63-679.
- 하늘, 배성만, 현명호 (2011). 성피해자의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25-737..
- 한덕웅,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호 (1993). 대학생 생활 부적응의 영향 요인과 영향 과정: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과 개인차 변인. 학생지도연구, 10(1), 1-35. 성균관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lemand, M. (2008). Age differences in forgivingness: The role of future time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5), 1137-1147.
- Barber, L., Maltby, J., & Macaskill, A. (2005) Angry memories and thoughts of reveng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anger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253-262.
- Baron, R. M.,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no, G., McCullough, M. E., & Root, L. M. (2008) Forgiveness, feeling connected to others, and well-being: Two longitudinal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82-195.
- Briana, L. R., & Julie, J. E. (2011).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 to Experimental Forgiveness Prompts: Do Men Show Stronger Responses Than Wome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3(2), 182-193.
- Brown, R. F., & Schutte, N. S. (2006)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jective fatigu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0(6), 585-593.
- Crossley, C. D. (2009).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to social undermining: A closer look at perceived offender motives. *Organizational*

-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8, 14-24.
- Enright, R. D. (2004). 용서는 선택이다 [*Forgiveness is a choice*]. (채규만 역). 서울: 학지사.
- Finkel, E. J., Rusbult, C. E., Kumashiro, M., & Hannon, P. A. (2002). Dealing with betrayal in close relationships: does commitment promote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956-974.
- Gassin, E. A. (1995). *Social cognition and forgiveness in adolescents romance: An intervention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arnefski, N., Teerds, J., Kraaij, V., Legerstee, J., & Van den Kommer, T. (2004).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267-276.
- Ghaemmaghami, P., Allemand, M., & Martin, M. (2011). Forgiveness in younger,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ge and gender matter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8(4), 192-203.
- Lawler-Row, K. A., Karremans, J. C., Scott, C., Edlis-Matityahou, M., & Edwards, L. (2008). Forgiveness, physiological reactivity and health: The role of ang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68, 51-58.
- MacKinnon, D. P., & Dwyer, J. H. (1993). Estimating mediated effects in prevention studies. *Evaluation Review*, 17, 144-158.
- McCullough, M. E.,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43-55.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Wade-Brown, S., & Hight, T.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cCullough, M. E., Root, L. M., Tabak, B., & Witvliet, C. v. O. (2009). Forgiveness. In S. J. Lopez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nd ed.). (pp.427-435). New York: Oxford.
- Miller, A. J., Worthington, E. L., & McDaniel, M. A. (2008). Gender and forgiveness: A meta-analy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8), 843-876.
- DeWall, C. N., Pond, R. S., Jr., & Bushman, B. J. (2010). Sweet revenge: Diabetic symptoms predict less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823-826.
- Rizkalla, L., Wertheim, E. H., & Hodgson, L. K. (2008). The roles of emotion management and perspective taking in individuals'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disposition to forg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1594-1601.
- Ohtsubo, Y. & Watanabe, E. (2009). Do sincere apologies need to be costly? Test of a costly signaling model of apology.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0, 114-123.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Billings, L. S.,

-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S., Roberts, J. C.,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2), 313-360.
- Tse, W. S. & Yip, T. H. J. (2009). Relationship among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other,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mplication for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513-523.
- Toussaint, L., & Webb, J. R. (2005).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nections between forgivenes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349-362). New York: Routledge.
- Worthington, E. L., & Wade, N. G. (1999). The psychology of unforgiveness and forgivene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385-418.
- Ysseldyk, R., Matheson, K., & Anisman, H. (2007). Rumination: Bridging a gap between forgivingness, vengefulness, and psychologic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573-1584.
- 1 차원고접수 : 2012. 9. 30.  
수정원고접수 : 2013. 1. 28.  
최종게재결정 : 2013. 2. 12.



## **Mediating effect of forg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ado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hysical symptom**

**A-Reum Le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MinKyu R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forg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ado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hysical symptom.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university students and an adult community sample in Gyeongnam and Busan (average age 22.38, males 249, females 191). Regarding the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used the questionnaire for measurement of those facts, forgiveness of other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hysical symptom. The study analyzed whether forgiveness have mediation effect or not when four non-adoptive cognitive regulation strategies that consist of 'self blame', 'blaming others', 'rumination' and 'catastrophizing' affect the physical symptom through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research has shown that 'other blame' and 'catastrophizing' affect significantly on physical symptom and rest strategies, and that forgiveness also has effect on physical symptom. Moreover, other blame and catastrophizing have indirect effect on the process with forgiveness, so the study proves that there is mediation effect related with 2 variations. With this, it is proved that partial mediation model is more proper thing from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artial mediation model and full mediation model.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re is direct effect to increase physical symptoms when 2 non-ado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ther blame and catastrophizing, use the case but those 2 rest other strategies, forgiveness affect indirectly in physical symptom. Lastly, it also discusses about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the future work.

*Key words : forgiveness, non-ado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physical symptom, mediating effect*